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이찬희 쌤

이 찬 희

초등학교 때, 맛달았던 쫄면의 행각이 발각되자 수치심에 못 이겨 가출을 감행한 바 있다. 중학생 시절,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라는 노래를 <모모는 XX님, 모모는 XX끼...>라고 가사를 바꿔 부르다 데냐에도 벌을 볼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다. 고교 시절, 한 소녀에 대한 짝사랑의 열병을 길게 앓고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부정한 시대에 맞서는 열정적 용기와 세계를 바라보는 냉철한 안목을 배웠다. 졸업 후, 한동안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세상을 깨우치다가, 뜻한 바 있어 상투적 이상을 버렸다. 그 후 언어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과 행복해지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

이 문서 파일의 무단 배포를 널리 허용합니다.

- 차례 -

- 미리 해두고 싶은 말 3
- 읽어라. 또 읽어라, 자꾸 읽어라 4
- 두려움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돼라! 6
- 질문하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는다 8
- 뼈대를 세워라 13
-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보라 19
- 밑줄 치는 습관을 들여라 27
- 비문학 지문을 철저히 읽고 이해한다는 것 30
- 고난도 지문에 대한 대처능력 33
- 지문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 39
- 비문학 지문 요약 훈련 42

[첨부] 비문학 지문 요약 훈련 (방법 및 예시)

미리 해두고 싶은 말

“수능/모의평가 기출을 반복 학습하라!”고 했더니, “지문 독해 원리도 없이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말이냐!”라고 투덜거린다.

한편으로는 ‘원리’에 집착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난다. “지문 독해 원리를 달라고? 지랄한다. 한글도 모르냐? 그냥 읽으면 되지, 글 읽는 데에 무슨 대단한 원리가 있다고 난리람... 읽고 이해하면 된다.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자꾸 읽고, 계속 읽으면, 끈질기게 읽으면 이해된다. 그게 내가 아는 가장 중요한 독해의 첫 번째 원리이다.”

너무 ‘원리’ 좋아하지 마라. ‘무슨 원리, 무슨 법’ 따위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제시하면서 절박한 수험생 고객을 끌어들이려 하는 ‘상업적 마케팅’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원리’를 찾는 학생들의 마음 이면에는 ‘쉽고 편한 지름길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한 편에 도사리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런 욕망과 쉽게 타협할 생각이 없다.

나 역시 이제부터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곧 ‘지문 독해 원리’를 너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 전에 너에게 미리 밝혀두고자 하는 바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기본적인 태도와 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곧,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며, 네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본에 관한 것들이다.

너의 조급하고 절박한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런 심정 때문에 있지도 않은 허황된 무지개에 눈이 멀어 ‘헛발질’이나 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기본’에 철저히 충실한, 성실한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기본에 충실한 길’이 바로 지름길이다. 그 외의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신묘한 길을 원하거든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물어봐라.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시작한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1) 읽어라, 또 읽어라, 자꾸 읽어라, 계속 읽어라, 이해될 때까지!

어떤 요령, 어떤 방법, 어떤 원리보다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언어 영역을 제대로 학습해 보지 않았던 초보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여러 변명을 걸어 치워라!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변명이다.

괜찮다! 독서 체험이 언어 실력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책을 읽는 것’과 ‘제한된 시간 내에 수능 시험용으로 딱 짜인 지문’을 읽어내는 것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독서 체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자, 어떤 지문이든 하나 꺼내 보라. 읽어라! 초보자인 너는 당연히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이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라!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용어들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개념, 현상, 이론’에 대해 어찌고저찌고... 잔뜩 써냈을 것이다. 자신감이 팍 꺾일 것이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비참한 기분이 들 수 있다. 괜찮다! 그 정도에 꺾이지 마라.

다시 도전하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 뽕족한 의식으로 그 의미에 집중하여 읽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해해 보라.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대략 좀 짚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다.

자, 자꾸 읽는다. 이제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보라. 국어사전은 언어 공부할 때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다. 이제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대강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읽어라.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구절, 문장은 그 앞뒤의 뜻을 견주어 가면서 의미를 파악해보려 노력하라.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괜찮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는 하나하나가 힘들고, 더딘 과정이다. 그런 과정 없이 뚝박질을 할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서야 언제 뚝박질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막 위태로운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어떻게 뚝박질까지 이르는지 관찰해 보면 안다. 겨우겨



우 일어서던 높이 두어 달 뒤에는 온 집안을 헤집으면서 뛰어 다니게 된다. 걸음마 단계에서 뽀뽀질 단계까지는 생각보다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장담컨대, 네가 지금껏 글을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네가 겁내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비문학 지문을 읽었다면, 열 번을 제대로 읽었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웬만큼은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 나간다면,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너에게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너는 그 작은 가능성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많은 초보자들은 스스로 글을 읽어보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저는 안 돼요.”라고 말하려 하고, 왜 안 되는지를 변명하려고 한다. 그런 태도로는 지문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글만 읽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새겨들어라. 너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요령,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이 아니다. (요령, 방법, 원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이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다.)

무조건 비문학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고, 계속 읽고, 끈질기게 읽어라.

이해될 때까지!

그런 당찬 <무대뽀 정신>만이 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2) 두려움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돼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을 접할 때, 인간은 두렵다. 이진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본능이다.

비문학 지문은 너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것이다. 낯설고,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로 널 위축시킬 것이다.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 항성년? 회귀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해댄다. 너보다는 오래 살았고, 너보다는 여러 세상 경험이 훨씬 풍부한 나도 ‘항성년, 회귀년’이란 용어를 듣도 보도 못했다. 고백한다. 나도 두려웠다.

두더지? 그게 ‘두디다(뒤지다)’의 ‘두디’에 ‘지(쥐)’가 결합한 합성어란다. ‘숫돌’이 ‘뿔다(비비다)’의 ‘뿔’에 ‘돌’이 결합한 합성어란다. 소위 ‘잘 나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학생들에게 국어(언어)를 가르치는 선생인 나도 몰랐다. 고백한다. 나도 두려웠다.

채권? 그게 뭔지 넌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좀 오래 살았던 덕분에 들어는 봤다. 그러나 나 역시 채권의 개념이 뭔지 잘 알지 못했고, 채권의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고백한다. 나도 두려웠다.

사회적 할인율? 양자 현상? 불확정성의 원리? 변별적 자질? 동영상 압축 기술? 소쉬르의 공시대? 칸트의 무관심적 관심? 등등... 너도 무식하겠지만, 너보다는 훨씬 많은 책을 읽고, 너보다는 훨씬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던 나도 모르는 내용투성이다. 고백한다. 나도 두려웠다.

비문학, 아니 언어 영역 지문에서 ‘낯선 것은 기본’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간혹 운 좋게 네가 좀 아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도 두렵고, 나도 두렵고, 모두가 두렵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지문의 핵심 내용을 웬만큼 파악하여 문제를 맞히고, 다른 친구들은 전혀 읽어내지 못하여 왕창 망가진다.

두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본능 그 자체를 어쩔 수는 없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 그 두려움이 자신의 정신을 잠식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본능에 지배당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가의 차이이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컨트롤의 차이가 지문 독해 가능성에 있어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고, 마침내 판이한 성적 결과의 차이로 고스란히 증폭된다.

‘일정한 선을 넘어선 두려움’은 너의 모든 정상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다. 네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는 순간부터
 년 두려움의 노예로 끌려 다닐 뿐이다. 따라서 너는 그 두려움이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곧바로 침착한 사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곧
 <두려움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 ‘두려움’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고, 뿌리
 깊은 것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을 지배하
 기 위해서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은 지식의 보유 여부 그 자체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기초적 배경지식이 필요하
 고 또 많은 경우 그 기초적 배경지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전문 지식을 필수로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 우리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지문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고 있다.

“아하~ 첫인상은 내가 전혀 모르는 잔뜩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것 같더니, 읽어보니 뭇
 별 것 아니네. 그냥 제대로 꼼꼼하게 읽고,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파
 악되네.” 이런 경험들...

이렇게 <읽고 이해해 본 경험의 축적>만이 ‘본능적 두려움에 대한 통제 능력’을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은 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을
 것이고, 몇 번의 ‘승리의 경험’은 그것에 싹을 틔울 것이고, 거듭된 ‘승리의 경험’은 네 마
 음속에 든든한 나무, 곧 <낮선 내용도 웬만큼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
 감을 키워낼 것이다.

넌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린들 어떠랴. 지
 금 당장은 일부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들 어떠랴. (선생인 나
 도 세세한 내용에 들어가면 잘 모른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가 잘 알겠는
 가!) 큰 줄기를 해낼 능력이 있다면,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야 더 많은 훈련을 통해 하나
 하나씩 다잡아 가면 되는 것이다.

담대한 마음을 지녀라. 하나하나의 ‘승리의 경험’에 기뻐하라. 그 ‘승리의 경험’을 계속
 축적하라. 스스로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나가라.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
 지 말라. 두려움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돼라!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3) 질문하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는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 가령 ○○지하철역에서 내려 ××학원까지 걸어갔다 걸어온다. 거의 매일 하루 두 차례 이상씩은 왔다 갔다 한다. 물어보자. “○○지하철역에서 ××학원까지 오는 길에 화장품 가게가 몇 군데 있더냐?”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휴대폰 가게여도 상관없다.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모른다. 매일같이 왔다 갔다, 수십 수백 차례 경험했던 길이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여학생은 요즘 얼굴에 짝어 바르고 있는 로션에 문제가 있어 심한 ‘피부트러블’을 겪고 있어 엄청 고민하고 있다. 이 여학생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겠는가, 모르겠는가?

아마도 이렇게 답할 것이다. “역에서 한 20미터쯤 내려오면 골목길 코너에 ‘미샤’가 있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다 보면 길 맞은 편에 ‘더페이스샵’이 있고...” 이 여학생은 환하게 알고 있다.

또, 친구랑 장난치다가 휴대폰을 박살낸 남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 “잘 됐다. 박살낸 김에 요즘 최신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야지. 근데 부모님께 사달라고는 할 수 없고... 어디 공짜폰 없을까?” 이 남학생은 어디에 어떤 휴대폰 가게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기종이 공짜폰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 동일한 경험을 했던 자들 중 어떤 이는 그 경험적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렇다. 아주 단순한 이유이다. <내가 대상에 ‘관심’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비문학 지문의 내용도 그러하다. ‘좀비’처럼 멍한 수동적 태도로 눈만 글자를 따라가고 있으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밖에! 그 글자가 스스로 날아와서 네 머릿속에 박히어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친절하게 알아서 드러내 주진 않는다.

아무 생각이 없는, ‘좀비스러운, 맛탱이 간 눈’으로 심드렁하게 읽는 것과 ‘호기심 어린 맑은 눈’으로 적극적 관심을 지니고 읽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 온다.

네가 죽어 있다면, 대상도 죽은 채로 있다. 그 때의 지문은 ‘죽어 있는 글자들의 군집’일



뿐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만, 대상도 살아서 움직인다. 네가 말을 건네면 놀랍게도 지문이 너에게 응답을 한다. 상호작용이 시작된다.

생명력 있는 인간답게 깨어 있어야! 그것도 평소 훈련되어야 한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라! ‘살아 있는 물음표’를 품고 있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상’을 보라는 말이다.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좀비 습성’이 거의 체질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난 무척 슬프다. 네가 살아 있는 인간이길 바란다.)

* * *

찬희가 동건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다.

“동건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사귀던 지현이가 나랑 더 이상 만나기 싫대. 내가 키가 작고, 못 생겼다고...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동건이 멍뚱뚱뚱 먼 산을 쳐다보거나, 딴 짓을 하면서 “어떤 동네 개가 짖고 있냐? 너는 짖어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네가 찬희라면 이런 동건을 ‘친구’라고 생각하겠는가? 내가 찬희라면 동건에게 이렇게 욕을 한바탕 해주겠다. “이런 ○새끼, 너 같은 새끼가 친구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너에게 진지한 말을 건넬 때,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비문학 지문을 접할 때, 너는 그것을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지 위에 박혀 있는, 글자들의 군집’으로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냥 ‘글자들의 군집’이 아니다. <글쓴이>가 ‘바로 <너>’에게, 진지한 태도로 건네고 있는 말이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신 분이 친절하게도 ‘너’한테 직접 찾아와서 뭔가를 말해주려 한다. 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가? “허격! ... 왜 저한테 그러세요?”라든지 “흐음, 함 씨부려 보시든가요. 들어는 보죠.”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수업 중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싸가지 없는 년놈’들이 종종 있다. 확 쥐 패 버리고 싶어지지만, 맘 좋은 내가 참는다.)

처음 너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관심으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

<그분>의 말에 이 <관심 어린 물음표>를 던지는가, 마는가의 차이 !

이 사소한 차이! ... 이 위대한 차이! ... 이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의 징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소한지만 위대한 실마리’를 뒤따라서 다른 것들이 술술 풀려 나온다.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 2008학년도 수능 지문)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많은 학생들은 위 글을 단순한 '글자들의 군집'으로 바라 본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비용, 이익, 투자, 불확실성, 할인, 가치, 이자 등등 온갖 생소한 낱말들이 나열되어 있다. 두렵다. 읽고 또 읽으면서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휩싸인 너에게 결국 하얀 것은 종이이고 까만 것은 글자일 뿐이다.

자, 살짝 관점을 전환해 보라. 이건 종이 위에 찍힌 글자들이 아니라, ‘대화’이다.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다가와서 진지하게 말을 건네는 거다.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경청하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나>는 <그분>에게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라는 ‘관심 어린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

자, 그런 ‘대화의 관점’으로,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위 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라.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

<그분>이 뭐라고 답하는가? <그분>의 대답을 단 한 마디로 말해 보라. “응, 할인율.” 이라고 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쉽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할인율’에 대한 글이다. (‘할인율’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하나 쳐 두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분>이 너에게 “응, 할인율.”이라고 답하면, 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네, 그렇군요. 계속 써부려 보세요.” 설마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할 거냐? 너의 반응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 “할인율? 그게 뭔데요?” 또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던졌으니 <그분>이 답해줄 것이다. 뭐라고 답하는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개념이야.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야. 어렵냐? 예를 들어 이자율...”라는 <그분>의 답이 들리는가? 쉽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주고,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거기에 밑줄을 쳐 두자.)

그 다음, 너는 또 <그분>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음. 그렇군요. 계속 써부려 보세요.”는 싸가지 없는 반응이라고 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아는 너는 “아하, 대강은 알 듯 한데요, 근데 그 할인율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분>의 답은?

전체 대화의 과정을 다 써 보면 이런 식이다.

나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 (이 위대한 질문!)
그분	응, 할인율. (할인율'에 동그라미)
나	할인율? 그게 뭔데요?
그분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개념이야.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야. 어렵냐? 예를 들어 이자율은 ...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에 밑줄,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에 밑줄)
나	아하, 대강은 알 듯 한데요, 근데 그 할인율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분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쓰는 거지. (‘사업 타당성 진단’에 밑줄)
나	사업의 타당성 진단?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 현재 비용과 미래 이익을 비교하는 거야. (‘현재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에 밑줄)
나	(밑줄 쳐 둔 <그분>을 말을 살펴보면) 아! 그래야겠네. 무작정 돈 쓰는 건 아닐 테니까. 음... 그러니까 현재 비용과 미래 이익을 서로 비교하려면, 시점을 똑같이 해서 비교해야 하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는 데 필요한 게 할인율이다. 이거네요!

이 정도면, 1문단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글로 하나하나 쓰자니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세밀하게 상상해가면서 읽어주길 바란다.)

정리한다.



지문을 읽은 과정은 ‘대화의 과정’이다.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너에게 필요한 태도는 ‘적극적 경청’이다.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되,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적극적 경청’은 무슨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 읽기의 과정을 ‘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약간의 훈련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지문은 너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4) 뼈대를 세워라.

지문을 처음 접할 때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라는 사소한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 말했다.

‘적극적 경청’의 태도, 곧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되,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말했다.

<글쓴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글쓴이>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는 ‘대화의 과정’이 곧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은 시험지 위에 박혀 있는 글자들에게 제각각의 가치, 중요성을 부여하고, 글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글자들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글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글자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이어서 한 번 스윽 보고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네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있는 물음표’를 던져야 하고, <글쓴이>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자들의 우열 관계’를 가려낼 수 없다. 온갖 글자들이 다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뒤엉켜 있을 뿐이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할인율’이다. 우리는 최초의 질문이었던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길 하시려고?”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다.) 말하자면 ‘할인율’이란 단어야말로 뼈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등뼈’에 해당한다.

‘등뼈’는 신체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등뼈’가 없다면 신체는 허물어진다. ‘할인율’은 이 글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할인율’이 없다면 이 글은 허물어진다.

이 등뼈로부터 갈빗대가 갈라져 나와 있다. 할인율이 뭔지, 그걸 어디에 쓰는 건지에 관



한 내용이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 / 사업의 타당성 진단)

이 갈빗대에는 다시 살코기가 붙어 있다. (이자율의 역 개념 등등 / 현재 투입 비용과 미래 발생 이익을 비교)

2문단으로 계속 이어가 보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나 어라, 이젠 ‘사업의 타당성 진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이네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에 밑줄) 이때는 그냥 ‘할인율’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이 되는군요. (‘사회적 할인율’에 동그라미)… 근데,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기 어려운데 봐요.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 ‘매우 어렵다’에 밑줄)

그분 응,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나 예에?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 수익률 ? 어휴… 뭘소린지 어렵네요. (일단,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에 밑줄 치고 껌으로 묵음.)

2문단에서 넌 당연히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 수익률’에 대해 모를 것이다. 걱정 마라. <그분>도 네가 모를 거라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네가 질문할 것이라고 미리 다 알고 답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

3문단이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 ‘시장 이자율’이 뭐냐면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줘야 하잖아. 그 때 붙는 이자율이야. 근데, 할인율이 이자율의 역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그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사회적 할인율로 쓰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일단, ‘시장 이자율’에다가 꺾쇠)

나 아, 예... 알만 하군요. 그럼 ‘민간 자본 수익률’은요?

그분 투자는 수익을 거두기 위한 거잖아. 공공 부문에 투자되는 자본은 민간 부문에도 투자될 수 있는 것이니까, 민간 부문에서 거두는 수익률, 그게 바로 ‘민간 자본 수익률’인데, 그런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나 아고고, 그러니까 공공사업도 삼성이나 엘지, 현대처럼 높은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한데... 음, 어지럽네. (일단,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꺾쇠를 쳐 두자.)

3문단은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 수익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2문단에서 나왔던 언뜻 알아듣기 힘들었던 용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는 거다.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다 깔끔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 겁먹지 마라. 그래도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다. 일단 그러면 됐다.

4문단으로 간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분 근데, 난 그 주장(시장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 !!!! ...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에 밑줄을 굵게 치자)

근데 왜요? 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분 우선,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야.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말야.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기 때문이지.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거든.

나 예? 잠깐! 잠깐! '우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우선'에 동그라미 치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에 밑줄 치고)

'더욱 중요한 것' 이게 두 번째 이유... ('더욱 중요한 것'에 동그라미 치고,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에 밑줄 치고)

아고 헛갈려... 좀 천천히 설명...

그분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연사,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

나 허 참, 흥분하셨네... 하여간 이걸 주장하고 싶으신 거구나.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밑줄을 굵게 치자.)

마지막 문단에서 마침내 <그분>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분>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 들었다. 그리고는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나>와 <그분>과의 대화는 끝났다. 어떤 말은 잘 이해했고, 어떤 말은 제대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괜찮다! 한 번 만에 내가 잘 모르는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큰 줄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다시 그 대화를 정리해 봐야 한다. 지문을 다시 보라.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꺾쇠 쳐 놓은 것을 중심으로 쓰으 훑어보면서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무엇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지를 파악해 보라.

비겅덩어리, 살코기 다 떼 놓고, 뼈대만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의 타당성 진단에 <할인율>이 필요하다.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에는 <사회적 할인율>이 필요하다. 어떤 자들은 <사회적 할인율>로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 수익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but, 나는 <수용하기 어렵다> 왜? (1)우선 ... (2)더 중요한 ... 때문이다. So,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 곧 뼈대이다. 세세한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해낼 수 있다. 어렵고 낯선 비문학 지문을 짧은 시간 내에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실제 문제를 푸는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글 전체의 뼈대는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다.

꼼꼼한 태도는 좋으나, 세부에 집착하지 마라. 모든 정보를 다 머릿속에 우겨넣으려는 무리수를 범하지 말라. 우리 같은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온갖 정보를 머릿속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가 못 된다.

중요한 것은 뼈대이다. 살덩이에 파묻혀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다. 글의 뼈대를 세워라.

완벽한 지문 이해를 위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점

1. 글쓴이는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자본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2. 다음 밑줄 친 구절의 뜻을 생각해 보자.
 -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 사회적 할인율이 높은 것이 왜 '미래 세대의 이익을 저평가하는 셈'이 되는 것일까?)
 -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과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은 무슨 관계일까?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할까?)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5)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보라.

글을 읽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곧 하나하나의 단어, 구절, 문장을 차례차례 읽고, 그 단어, 구절, 문장이 의미하는 여러 부분적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접하게 된다. 우리는 부분을 통해서 ‘글의 뼈대’인 전체를 파악하게 된다.

‘글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읽어낸 글자들에게 제각각의 가치, 중요성을 부여하고, 글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때 세부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글의 전체적 뼈대를 파악하는 일이다.

2004학년도 수능의 다음 비문학 지문을 보자. (이 지문은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매우 힘들었던 최고난도의 지문이라 할 만하다.)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 별 것 아닐 것이다. 너무 겁내지 말고, 위대한 질문을 던지자.

나 아, 예...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할 하시려고?
 그분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
 나 그게 뭔데요?
 그분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
 나 (헉! 어렵당)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 돌의 단단함을 측정했다고 해서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 돌이 부딪히기도 전에 유리창이 미리 깨질 순 없다.)
 나 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요.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 근데, 고전 역학이 아니라, 양자 역학이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어. 그리고 양자 역학의 현상들은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

나 불가사의? 왜요?

그분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나 어이구,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 지구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되면, 순식간에 금성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은 -1이 된다는 거지. 지구 입자가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이면, 순식간에 멀리 떨어진 금성 입자는 왼쪽으로 1만큼 움직인다는 거야. 불가사의하잖아?

나 예고, 음음...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쌍의 입자가 순식간에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군요.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분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아, 예를 들어,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다음,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불가사의하잖아?

나 ??? ... 에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자구요..... A를 측정하고, 다시 B를 측정했더니... 처음 측정했던 A가 불확정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뜻인 것 같군요.

그분 OK, 제법 똑똑하군!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지구 입자와 금성 입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이 불확정적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도 불확정적으로 되고... 음... 음... 설명하는 나도 복잡하구나. 하여간 불가사의하잖아?

나 ??? ... 헉헉..... '2문단 내용'과 '3문단 앞부분 내용'이 서로 짬뽕되어서 아주 복잡해지는 거군요!

그분 양자 역학에서의 이런 현상들은 1문단에서 말했던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나 !!! '고전 역학의 가정'이 뭐였더라? (1문단을 다시 확인해 보고) 아!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 ... 음...음... 뭔가 감이 잡힐 듯 한데요. ... 양자 현상은 그 '고전 역학의 가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고전 역학의 입장에서 양자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분 이런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건 매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실험을 통해 양자 현상이 미시적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나 !!!

그분 근데, 양자 역학은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데, 어떤 물리학자들은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건 별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리학자들은 "더 나은 이론이 양자 역학을 대신하여 나중에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단다.

나 !!!

<그분>과 대화하면서, 지문을 쭉 읽어 나왔다. 최고난도의 지문이어서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점이 꽤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지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를 지문에 표기한 것은 대략 다음 페이지와 같다.

자, 밑줄 치고, 표기한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이 글의 뼈대를 정리해 보라.

이때, 처음 글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을 '전체 내용을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사고하여 이해해 보려고 하라.

고전 역학은 다음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통해 전파된다.

그런데,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현대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은 불가사의하다. 첫째,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멀리 떨어진 금성 입자가 순간적으로 지구 입자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어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방향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현상들을 고전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존재하는 양자 현상을, 양자 역학은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상하게 보인다고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는 다른 이론이 잘 설명해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a)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b)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양자 현상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 판단해 보라.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문단의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이 그냥 제시된 게 아니다. 그 이후의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2문단에 나온 ‘양자 현상’의 첫 번째 불가사의(=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는 고전 역학의 어떤 가정에 어긋나는 것인가? 지구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 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금성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 이 된다. 한 놈이 다른 놈에게 순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다. 물리적 영향이 빛의 속력을 넘어서 전파된 것이다! 곧, 1문단에서 제시된 고전 역학의 두 번째 가정에 위배되는 현상이다. (지구에 있는 이찬희의 키를 10cm 잡아 늘였더니 순식간에 금성에 있는 장동건의 키가 10cm 줄어들더라는 이야기다. 지구 이찬희가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금성 장동건이 순식간에 몸무게가 줄어들더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것이다.)

3문단의 초반부에 나온 ‘양자 현상’의 두 번째 불가사의(=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어,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운동량 측정’이 ‘먼저 측정했던 수평 방향 운동량’을 불확정적으로 만든다.)는 고전 역학의 어떤 가정에 어긋나는 것인가? 수직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니 수평 방향 운동량 값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버렸다는 건 어떤 물리적 속성을 측정하니 다른 물리적 속성이 이상하게 바뀌더라는 이야기다. 곧, 1문단에 제시된 고전 역학의 첫 번째 가정에 위배되는 현상이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면 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찬희의 키를 측정했더니 이찬희의 몸무게가 막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것이다.)

3문단의 후반부에 나온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내용은 위 두 가지 양자 현상이 함께 조합되면서 더욱 더 복잡해진 것이다.

이런 이해를 다시 지문에 도형/메모를 추가하여 표기해보면 다음 페이지와 같다.

* *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문단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 **<물리적 영향이 빛의 속도를 넘어 전파된다.>**

3문단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어,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운동량 측정’이 ‘먼저 측정했던 수평 방향 운동량’을 불확정적으로 만든다.> =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이,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를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a)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b)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①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는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물리적 영향이 빛의 속도를 넘어 전파된다! 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②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이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이젠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문단에서 2, 3문단으로 이어지는 글의 흐름 속에서 조망할 때 이러한 추론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1문단에서 언급한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과 2, 3문단의 내용을 서로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분의 내용을 전체 글의 흐름과 떨어뜨려 놓고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만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곧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바라볼 때에만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을 읽어가면서 전체의 뼈대를 세운다. 또 전체의 뼈대를 세운 다음, 다시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바라볼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위치를 잡고, 그 의미를 드러낸다.

부분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라. 그리고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보라.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양자 역학>과 관련된 기출 지문

☞ 2012학년도 수능 [47~50] ‘불확정성의 원리’ / 1994학년도 1차 수능 [56~60] ‘신과학 운동’을 보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6) 밑줄 치는 습관을 들여라.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등 아주 간단한 도형 표기, 때로는 간단한 메모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도형과 밑줄에 따라 글의 전체 구조와 주요 내용이 시각화되어 즉각 파악되므로, 독해와 문제 풀이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눈으로만 지문을 읽는 습관’을 지닌 학생들도 꽤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학생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들도 대부분은 밑줄을 치면서 글을 읽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밑줄 치기를 포기하고 원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할지에 신경이 쓰이고 시간도 걸려서, 도리어 글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밑줄을 치지 않고, 눈으로만 집중하여 읽어서 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밑줄을 치지 않는 습관은 ‘평이한 지문’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글의 구조가 단순하고, 내용이 평이할 경우에는 굳이 밑줄을 치지 않아도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문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 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눈으로만 읽은 습관’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이런 고난도 지문들은 기억력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선지의 어떤 진술과 관련된 내용이 지문의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내기조차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미로 속을 헤매는 상태가 되어 지문 속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

밑줄 치고 도형 표기를 하는 것은, 종이 위에 평면적으로 나열된 글자들을, 중요성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입체화시키는 것이다. 글 전체의 등뼈에 해당하는 것과 그 등뼈에서 갈라져 나온 갈빗대에 해당하는 것과, 그 갈빗대에 붙어 있는 살코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간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세부적 내용(살코기)을 머릿속으로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그게 어떤 갈빗대에 붙어 있는지는 즉각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디쯤 있는지만 즉각 찾아낼 수 있다면, 지문 속에서 세부 내용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할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 지식을 검색할 능력만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지문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저장하지는 못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글의 뼈대를 파악하고 이를 밑줄과 도형으로 표기해 놓는다면, 필요한 정보를 즉각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된다.

‘눈만으로 글을 읽는 습관’을 버려라. 물론 하나의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일은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빚어지게 된다. 그래도 그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반복 훈련을 통해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는 게 낫다. 글을 읽고 이해해가는 속도와 동시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밑줄을 긋고, 도형을 표기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 * *

어디다 밑줄을 쳐야 할 것인지는 딱 정해진 정답은 없는 거다. 글을 읽는 자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정확하게 밑줄을 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판단하는 구절에 밑줄을 치면 된다. 좀 틀리면 어쩌냐. 밑줄 좀 잘못 쳤다고 아무도 때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네 스스로 내용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가면서 글을 읽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마르고 닭도록> 해설집에 보면 비문학 지문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놓은 박스를 볼 수 있다. 그 요약 내용은 자습서의 단락별 요약처럼 무슨 근사한 개념어로 폼나게 단락별 주제를 써놓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지문에 있는 구절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거기 옮겨져 있는 구절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밑줄치고, 도형 표기해야 할 부분들을 표시해 놓은 모범 답안쯤 된다고 보면 된다. 즉,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을 읽고 밑줄치고 도형 표기한 것이 '해설집'의 지문 요약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내가 밑줄 친 것이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밑줄/도형의 표기 방법

도형 표기를 복잡하게 하는 건 실전적이지 못하다. 단순한 것이 좋다. 동그라미, 밑줄 정도를 쓰고, 세모/네모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적절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 첨부한 파일 중 <비문학 요약과제 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라.)

- (1) 글의 <등뼈>(글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화제)는 네모
- (2) <갈빗대> (중심 화제에서 갈라져 나온 주요 뼈대)는 동그라미



(3) <살코기> (갈빗대에 붙어 있는 구체적 주요 내용)은 밑줄

그 이상의 세분화된 방법은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 위 (1)의 '네모' 표기도 <비문학 요약과제 방법 및 예시>에서는 보다 잘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해 네모로 나타내었지만, 실제로는 네모로 표기하지 않고, 더 굵은 동그라미로 표기한다. 왜냐하면 '네모'를 그리는 게 번거로우니까. 동그라미는 획~ 그릴 수 있는데...)

때로는 '세모'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는 글 내용 중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별화하기 위한 표기로 사용한다. (* <비문학 요약과제 방법 및 예시>에서 <전통적 철학적 미학 vs. 체계 이론 미학>의 이원적 개념 대립 관계를 표현할 때에 한 편은 동그라미, 다른 편은 세모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기 방법은 학생마다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서, 좀 달라도 큰 상관은 없다. 내가 언급한 원칙과 첨부한 <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익혀야 할 것이다. (* 당연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실전 상황에서의 밑줄/도형 표기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글의 내용 이해와는 동떨어진 채, 밑줄/도형만 근사하게 표기하기도 한다. <두 가지 대립 개념>이 나오면 내용 이해보다는 네모/세모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데만 치중하고, <그리고, 또, 또한>이 나오면 '+' 표기에 바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나오면 세모 표기나 'V' 표시 그리기에 바쁘고, <이와 같이, 이처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등등은 네모에 색칠하고 밑줄 긋기에 바쁘다. 이렇게 하면 그림은 '완전 곳'이다. 그러나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실전에서는 밑줄/도형 표기 그 자체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또 밑줄 치는 일에 신경이 쓰여서도 안 된다.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밑줄/도형 표기는 그것을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평소 밑줄/도형 표기를 의식적으로 연습해서 습관처럼 익히되, 웬만큼 틀이 잡힌 단계가 되면 더 이상 밑줄/도형 표기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무의식적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단계에서는 '밑줄 좀 잘못 쳐도 상관없다.'는 담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7) 비문학 지문을 철저히 읽고 이해한다는 것

비문학 지문을 철저히 읽고 이해한다는 건, <꼼꼼하게 읽은 후, 굵직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세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독해>를 의미한다.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글의 큰 흐름이 딱 보여야 한다.

2010학년도 수능의 인문 지문을 예로 들어 보자.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 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이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글이 어떤 <굵직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글은 <지와 행>에 대한 글이다.
2. <조선 성리학자의 지와 행> ⇨ <18C 홍대용의 지와 행> ⇨ <19C 최한기의 지와 행> ⇨ <왜 이들의 지행론이 다른가?>의 줄기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다.

‘1’은 이 글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큰 줄기 곧 글의 <등뼈>이다. ‘2’는 이 등뼈로부터 갈라져 나온 <갈빗대>이다. 이 ‘등뼈와 갈빗대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갈빗대>에는 <살코기>가 붙어 있다.

지와 행

- 조선 성리학자
 - 지행병진, 상자호진
 - 도덕적 실천과 결부
 - 마음속 만물의 이치를 도덕적 수양을 통해 찾고자 함
- 18C 홍대용
 - 행 = 도덕적 수양 + 사회적 실천
 - 지 = 도덕 법칙 + 실용적 지식
 - 지행병진 전제 and 행 > 지
- 19C 최한기
 - 행 = 일체의 경험
 - 지 =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 지식
 - 선행후지
 - 대상 : 인간, 사회, 자연
 - 차별화된 지식론 : 행1 → 지1 → 행2 → 지2 ...
물리 → 사리 → 인도
- why 다름?
 - 학문 목표와 관련
 - 성리학자 : 도덕적 수양
 - 실학자(홍대용) : 사회 현실 개혁
 - 특히, 최한기 : 격변 시대 대처



위 정리는 글의 <큰 흐름>과 더불어서 <세부적 정보>도 놓치지 않은 것이다.

글의 <등뼈>, 그 <등뼈>에서 갈라져 나온 <갈빗대>, 그 <갈빗대>에 붙어 있는 <살코기>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숲도 조망하면서 나무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이걸 머릿속에 다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연히 암기는 불가능하다. 지문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것을 즉각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등의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

문단별로 ‘핵심 문장’을 찾는 식의 독해법은 잘못된 독해법이다. 일부에서 가르치는 “한 문단은 4,5개의 문장이 있고, 1개의 중심 문장과 나머지의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의 기계적인 접근은 실제의 지문의 구성과 맞지 않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의 문장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글 전체는 <지와 행>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자], [18C 홍대용], [19C 최한기]가 말한 <지>, <행>, <지와 행의 관계>가 중요하고, [why 다름?]이 중요한 것이다.

* * *

기출 지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당 지문의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지문 그 자체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기출 지문을 통해 ‘지문 독해’의 방법을 터득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문에 이를 계속 적용해 보는 훈련으로 그 독해의 방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혀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제로 지문 읽기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가길...

-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는 굵직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전체>의 눈으로 다시 <부분>을 보라.
- 글에는 <등뼈>가 있고, <갈빗대>가 있고, <살코기>, <비계 덩어리>도 있다. 글의 <등뼈>를 먼저 보고, 그 등뼈에서 갈라져 나온 <갈빗대>의 연결을 본 다음, 그 갈빗대에 붙어 있는 <살코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 독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전체의 모습>을 계속 구성해가면서 읽어야 하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주요 부분>을 재빨리 한 눈에 훑어보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밑줄, 도형 표기임)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훑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진입한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8)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지문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도 정답을 맞히는 능력 -

‘비문학 지문 독해 방법’에 대해 두 명의 학생과 주고받았던 질문/답변 내용을 옮겨 놓는다.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큰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다. (※ 이 문답들은 <이찬희 언어 멘토링> 문답게시판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것임)

학생의 질문 1

2011학년도 수능 지문<배열, 연결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와 <그레고리력>을 보면서 문득 느낀 바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배열, 연결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지문은 사실 제가 반복해서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어서 시험장에서 저를 패닉에 빠뜨린 글이었는데, 다시 복습하면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렵פות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된 건 제쳐두고, 된 내용이라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지문에서는 자료 관리의 종류로 일단 <배열>과 <연결 리스트>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2) <배열>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자료의 읽기와 쓰기가 용이하고, 어떠한해서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걸리는 시간이 길다.
- (3) <연결 리스트>는 어떠한해서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고, 어떠한하기 때문에 자료를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문을 다 읽고 아직도 이해가 완전히 안 되어서 내심 찝찝한 기분으로 문제를 봤는데, 뜻밖에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잠정적으로 내려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문에 나온 과학적, 기술적 원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원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의의, 의미’가 있게 마련이고, 주로 문제에서 묻는 건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연결 리스트’의 원리를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의 과정을 제쳐두고 ‘결과’로서 ‘연결 리스트 구조가 읽기가 어렵고 삭제가 쉽다’라



는 걸 대충 알아두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원리를 깊게 묻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레고리력> 지문에서도 저는 문과생인지라 숫자가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2문단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됐다고 서술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잡아둔다”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 지문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위 <배열,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지문처럼 각 문단에 제시된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 의의’를 가지는지 파악하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용이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정리한 ‘중요한 의미,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그레고리력을 시행했다.
- (2) 그전까지 사용되던 율리우스력은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 (3) 율리우스는 태양의 운동만으로 그레고리력을 만들려고 했다.
- (4) 1년의 길이의 기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항성년은 한계가 있었다.
- (5) 회귀년 길이를 그레고리력의 1년 기준으로 채택했고, 절기에도 잘 맞았다.

이 정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는 두 번째 문단 365일, 366일이 나오자마자 패닉에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도 복잡한 원리나 절차라고 한다면, 일단은 패스해도 사실상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배열,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지문에서 제가 생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 건가요?

일부러 복잡한 원리에 대한 독해에 압박을 느낀 수험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 ‘배려’를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면 실제로 글을 읽는데 있어서, 어떤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찬희쌤의 답변 1

학생이 나름대로 발견한 그 ‘깨달음’은 고난도의 비문학 지문을 읽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독해의 방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낯설고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지문 내용의 일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제대로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몹시 당황하여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져서 허둥대는 것과 그래도 침착하게 읽어낼 수 있는 만큼은 읽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대처 능력 역시 수험생이 갖추어야 할 언어 실력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출제자는 학생들이 낯설고 어려운 지문의 모든 세세한 내용을 다 이해할 것을 전제하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이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출제진들도 모두 알고 있고, 또 수험생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쫓기면서 풀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여 출제하게 됩니다.

간혹 세세한 것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선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원의 출제자가 지문을 쓰고, 문제를 만들 때는, 지문의 큰 흐름에 따른 주요 핵심 내용 파악과 그것에 대한 이해를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웬만한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런 대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항도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만 풀리는 문항도 꽤 있기 때문에, <학습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지문의 세세한 내용을 다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학습과정, 훈련과정을 통해 읽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능력을 높여 가야 합니다.

나는 다른 글에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는 굵직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전체>의 눈으로 다시 <부분>을 보라.
- 글에는 <등뼈>가 있고, <갈빛대>가 있고, <살코기>, <비계 덩어리>도 있다. 글의 <등뼈>를 먼저 보고, 그 등뼈에서 갈라져 나온 <갈빛대>의 연결을 본 다음, 그 갈빛대에 붙어 있는 <살코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 독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전체의 모습>을 계속 구성해가면서 읽어야 하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주요 부분>을 재빨리 한 눈에 훑어보면서 (* 이때 필요한 것이 밑줄, 도형 표기임)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훑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진입한다.

위 질문한 학생은 글의 ‘등뼈’와 ‘갈빛대’를 대략 파악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갈빛대에 붙어있는 ‘살코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열>과 <연결 리스



트>가 어떤 원리에 의해 자료 읽기, 쓰기, 삽입, 삭제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이중 연결 리스트>가 왜 자료 접근에 더 용이한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원리의 이해를 좀더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있었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침착하게 글의 뼈대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 그렇게 되어 가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시 제대로 꼼꼼히 읽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위 학생이 충분히 이 정도의 글은 이해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굵직한 뼈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세세한 살코기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걸 해내야 합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읽고, 쓰고,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해당 지문의 글을 <그림1>과 <그림2>의 자료와 결부시켜서 다시 읽어 보세요. 그렇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그레고리력> 지문의 경우, 365일 6시간이니 365일이니 366일이니 하는 세부적인 정보에 지나치게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런 세부 정보를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면 망합니다. <뼈대> 곧 , <전체>가 우선입니다. 그런 정보는 그냥 읽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고, 이해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확인해 두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과정>에서 최대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놓을 것!
 - 이걸 평소 꼼꼼하게 읽고, 굵직하게 파악하고, 다시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보는 과정을 체화시키는 반복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야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실전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 것!
 - 침착하게 읽어서 중요 내용(곧 글의 '뼈대')을 파악하라.
 - 명확히 이해가 안 되어도 중요 내용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학생의 질문 2

2011학년도 수능, <채권>에 관한 지문, 1문단의 일부 내용입니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 부분을 읽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낯선 용어들이라 쉽게 와 닿지 않고(채권의 정의가 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량도 많고, 이 단락에서 내용 일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보여서 어떻게 처리하며 읽어야 할지도 당황했습니다.

이 단락 하나 가지고, 채권의 지급 조건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는 주체를 물어볼 수 있고, 채권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는지, 일시적으로 이자액을 받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이자액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수 있고, 이자액의 단위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채권이 만기일에 거래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채권 가격의 요인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가면 머리에 각인이 안 되어서 곤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읽는 것도 곤란하고, 붙잡고 읽는다 해도 복잡한 세부 내용(인과관계, 정의, 조건, 주체 등)을 전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이런 건, 어찌해야 할까요?

이찬희쌤의 답변 2

2011학년도 <채권> 지문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특히 쫓기는 시간 속에서 이 지문을 대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이라는 중심 화제 자체가 매우 낯선 것인데다가, 이에 대한 설명 방식도 불친절한 것이어서, 독자(수험생)로 하여금 중심 화제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더 멀게 느끼게 만들었던 지문입니다. (* 2006학년도 수능의 [52~55] 지문인 <옵션>에 관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불친절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임을 알 수 있지요.)

어쩐지까? 지문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 우리가 지문에 맞추는 수밖에...

이 글을 한 번에 짝 명료하게 이해하는 건, 학생들 수준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소의 ‘버벅댐’과 ‘부분적 거듭 읽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다만, 그래도 이 글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등뼈’로 가지고 있고, 이 등뼈에서 <현재 가치 (금리)>,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가 ‘갈빗대’가 갈라져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갈빗대에 ‘살코기’가 붙어 있는 글임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채권이란?
- 채권 가격과 금리
 - 금리 상승 → 채권 현재 가치 하락 → 채권 가격 하락
- 채권 가격과 만기
 - 만기 다가올수록 → 금리 변화 덜 민감
 - 만기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 기대 → 액면이자율 높은 채권 선호.
- 채권 가격과 지급 불능 위험
 - 지급 불능 위험 증가 → 채권 가격 낮게 형성
- 채권 가격과 다른 자산 시장 상황
 - 다른 자산 시장 호황 → 수요 줄어 채권 가격 하락할 수도.

지문을 읽으면서, 한 번에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다 머릿속에 우겨 넣으려는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글의 ‘등뼈’와 ‘갈빗대’를 파악하여 딱 표시해 두고, 살코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밑줄 딱 쳐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문을 봐야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선택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더 세세한 정보들은 그때 그때 지문의 내용을 다시 부분적으로 참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지문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선 것은 누구에게나 본능적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이 결정적 순간에 승부를 판가름 짓는 거지요.

결론!

- **쫄지 마라.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라.**
- **‘실전 상황’에서는 작은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마라. 중요한 것은 뼈대를 세우고 전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 세세한 내용까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욕심내지 마라.
- **‘부분’은, 필요할 때, ‘전체’의 눈으로 판단하면 된다.**
 - 낱알이 이해되지 않은 세부 정보, 머릿속에 담아둘 수 없었던 세부 정보는 필요할 때,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분을 찾아서 판단해 내면 된다.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9) <지문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을 묻는 그대에게

학생의 질문

글을 읽는 독해력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2011학년도 수능기출 <채권> 지문을 처음 접한다고 했을 때, 너무 생소한 어휘나 정보들로 문장 이해가 떨어지게 되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하는 정도로만 파악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휘력을 길러야하는 건가요?

현재 선생님의 <마르고 닳도록>으로 수능 기출을 쭉 풀어가는 중인데, 기출을 열 번 푼다고 해서 독해력 자체가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수능 시험에 맞게 반복하고 출제자의 의도 등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려운 지문을 만나게 되면 항상 여태껏 연습한 독해력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찬희쌤의 답변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지문을 독해하는 실력>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종합된 결과로서 ‘독해 실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일단, 어휘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기본 어휘 실력이 딸리면 글의 내용을 파악해내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또 어휘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글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즉, 앞뒤의 의미 맥락에 따라 해당 구절의 의미를 추론하여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글을 읽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언어 영역에는 소위 '나잇값'이라는 게 있지요. 상대적으로 인생 경험이 더 풍부한 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독서 경험도 간접적으로 독해실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독해력이라는 건, <어휘 실력 + 맥락에 따른 의미 추론 능력 + 배경지식 + 직간접의 인생 경험>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겁니다.

줄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어휘를 알 수 없고, 온갖 분야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없듯이, 근본적으로 독해력 향상의 길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길’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독해력 향상을 위해 시간과 노력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독해력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능 기출/ 모의 평가 기출>의 시험지 안에 쓰여 있는 모든 글자와 글자들의 집합이 지닌 뜻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느 사회 집단이든지, 자주 쓰는 어휘가 있는 법입니다. 가령 짱패 집단은 짱패 집단 특유의 어휘를 쓰게 마련이고, 고딩 집단은 고딩 집단끼리의 어휘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평가원 특유의 자주 쓰는 어휘와 용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해하기 전에 무조건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습득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건 그냥 외워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박아둬야 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수능 기출, 모의평가 기출 40회 분량의 문제지 안에 쓰여 있는 모든 어휘, 용어, 개념, 표현 정도를 제대로 습득해도, 수능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추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은 몇 달 간의 수험기간 중에 그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도 벅찬 일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으로 100% 충분하지 않지요. 가령, 학생이 예로 든 지난 수능의 ‘채권’과 같은 지문은 충분히 수험생들을 당혹하게 할 만한 지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채권’을 접해볼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채권’에 대한 배경지식이라곤 손톱만 큼도 없었을 거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채권’이라는 화제 자체가 매우 낯선 것인데다가, 이에 대한 설명 방식도 불친절한 것이어서,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했겠지요. 이런 글을 한 번에 짚 명료하게 이해하는 건, 학생들 수준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력이 높은 학생도, 실력이 낮은 학생도 모두가 ‘버벅대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그 상황에서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모든 것을 씹빡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글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등뼈’로 가지고 있고, 이 등뼈에서 <현재 가치 (금리)>,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라는 ‘갈빗대’가 갈라져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갈빗대에 이런저런 ‘살코기’가 붙어 있는 글임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문이 출제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EBS 연계 출제 방침>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EBS 연계 방침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질 것’을 우



려한 평가원의 의도적인 지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지문 내용을 봐둘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중심 화제’에 대해 미리 그 용어/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전 수능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EBS의 ‘플러스알파’ 효과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1) 독해력 향상의 길은 끝이 없다. 그래서 막연한 느낌이 든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길은 있다. 그 길은 <수능/모의평가 기출>에 담겨져 있는 모든 용어, 개념, 표현, 지식, 해법을 철저히 습득하는 길이다.
- (3) 거기에 덧붙여 EBS의 주요 지문을 봐둘 필요가 있다. (배경지식의 확장을 위해)

질문한 학생은 <‘기출 반복 학습’만으로 독해력 자체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만,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기출의 학습을 문제의 ‘정답’만 찾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독해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기출의 학습을 그렇게 좁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정답을 찾는 풀이 방식은 처음 한두 번 풀 때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의 반복 풀이 과정에서는 모든 ‘지문-문항-보기-선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용어-개념-표현-지식-해법’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곧, 기출의 반복 학습의 과정은 <어휘 실력 + 맥락에 따른 의미 추론 능력 + 배경지식>을 확장해가고, 이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 풀이 과정에서 이미 제법 알고 있는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모든 글자를 읽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이 도출되는 사고 과정과 답 아닌 선택지가 틀린 것임을 판단하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되풀이 하여 사고해 나가야 합니다. 곧 이런 과정은 독해력이 향상되는 중요한 훈련 과정인 겁니다.

다시 요약하여 강조하자면, <기출 반복 학습> 과정은 문제지 내의 모든 글자를 다시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지문의 세부적 내용으로부터 전체의 골자를 파악해내고, 다시 전체의 골자를 염두에 두면서 세부적 내용을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거듭 볼 때마다 지문이 좀더 정밀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의미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곧 독해력을 제대로 갖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길...

건투를 !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 (10)

비문학 지문 요약 훈련

- 스스로 요약하여 글로 써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문학 지문을 밑줄 쳐 가면서 거듭 읽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 이를 스스로 요약하여 글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독해력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다.

이미 있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다시 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일까 싶기도 하겠지만, <쓰는 행위>는 <읽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 차이가 있다. 이걸 해 보면 안다.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대로 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요약하여 써보는 과정에서, 어렵뚫이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되고, 글 전체 구조까지 파악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백 마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실제 <비문학 지문 요약 과제>를 경험해 본 학생들의 소감을 소개하겠다.

EBS가 큰 걱정거리였다. 이제까지 학원 수업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숙제도 항상 해 왔지만, 이과인 나는 사회 지문과 경제지문만 나오면 항상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찬희 선생님이 내주시는 'EBS 선별 지문 요약 과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못하는 사회나 경제지문은 2번 이상씩 요약을 했었다. (* 이찬희 쌤 : 이 학생은 처음 '수능/모의평가 기출 지문'으로 구성된 요약 과제는 하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때는 이게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여름 무렵부터 'EBS에서 선별한 지문'으로 과제가 나올 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약 한 번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지문이 다 이해가 갔다. 몇 번씩 읽어도 모르겠던 지문도 "에잇, 요약 한번 해보자"하고 직접 글로 정리해 보고 나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왜 이해를 못했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수능 보기 전 몇 달 동안은 툴툴이 기출을 풀고 EBS요약을 하면서 보냈다.

드디어 수능 날. 나는 운이 좋게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고사장에 시험보기 1시간 전에 도착 할 수 있었다.

학원 언어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시동을 걸어야 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나는 빠르게 어려웠던 EBS지문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장을 하던 탓에 지문이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고 그저 '글자들'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나는 빨리 전략을 바꿔서 공책과 연필을 들고 그 지문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썼다. 항상 하던 것이어서 그런지 요약의 힘이 원래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제서야 지문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점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한 시간을 요약을 하고 나니, 감독관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고 나는 편안함 마음으로 언어 문제를 풀었다. 방금 전까지 요약했기 때문에, 언어 지문들이 읽자마자 머릿속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었다.

요약의 힘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다. 이제까지 찬희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요약 과제 중 어려워서 몇 번씩 했던 지문들이 수능에 전부 다 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 지문들의 내용을 거의 외워버렸기 때문에 그 지문들은 눈으로 스캔해도 풀 수가 있었다.

시험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채점을 해 본 결과, 언어는 2점짜리 2개와 1점짜리 1개를 틀려서 95점(1등급)을 맞게 되었다.

찬희 선생님 말대로 역시 언어는 기출과 요약이 전부인 듯하다.

- Alexandra

재수, 삼수하면서 언어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저에게 정도(正道)를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기출 반복해서 보라는 말씀에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잘 따른 것에 대해 한 점 후회도 없습니다. 기출은 반복해서 봐도 틀리는 문제가 있고 기출을 통해 문제 접근방법 같은 것을 습득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눠주신 기출지문 요약이 정말 좋았어요. 요약하면서 글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 보다 지문 파악이 쉽구요, 문제에 일대일로 적용하는 게 쉬워지죠. 제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만 해본 사람만이 제 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음!!

- kiseonseo12

기출 지문 요약은 거창한 것은 아니고 선생님께서 닥치고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라고 하셔서 (기출반복학습 과정에서) 수능 기출 전개년도 지문을 하나하나 글을 읽고 요약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왜요? 교수님,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글에서 어떻게 추론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글쓰기와 대화하기에 관해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다 읽으면,

1. 글의 ‘중심 화제’ 쓰기
2. 각 문단별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요약하기

이것 둘을 쓰는 겁니다. 또, 구조가 좀 복잡해보이고 제목 정하기가 까다로운 글은 도식화해서 나타내보기도 했습니다. 쓰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휘를 골라서 써야 할지 어떻게 문장 끝맺고 시작할 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 케이사

비문학요약은 9평 이후 수능 일주일 전까지 꾸준히 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니(마치 게임 레벨업 할 때처럼) 언어영역 문제지 속 글자들을 딱딱하게 대하던 모습이 '활자속 필자'와 대화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수능 시험장 1교시 때엔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느라 반패닉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지만, 평소에 '믿음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이것도 정말 중요. 승리 경험의 축적) 결국 12학년도 수능 1교시 때에는 평소처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풀게 되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차니쌤과 함께,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묵묵하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적어도 언어영역에 한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니쌤께서 '비문학 읽는 법'에서 강조하시는 점, 특히 '비문학요약과제' 하면서 '전체의 눈으로 부분을 보는 연습', 문단별로 중요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치며, 단락별로 음미, 다 읽고 잠시 전체적으로 음미하는 연습해보시면, 실전에서 글들을 다 읽으면 결국 무얼 말하려는지 시험장에서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

- onsaemiro

선생님께서 인터넷으로 올린 '비문학 지문요약과제' 보고 하루에 지문 하나씩 요약정리 해보았거든요. 이겨놓고 싸우는 법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구요. 그래서 그런지 감도 많이 살아나고, 발문을 읽을 시에 물어보고자하는 핵심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지문 또한 처음에 읽고 나서 헤맬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중심별로 잘 들어와요.

- 마이구미

정말로 언어는 정확한 지문이해가 중요. 정확한 지문 이해에는 요약이 정말 좋은 공부법 같습니다.

- 정치학도

작년 성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비문학 요약 과제'였습니다.

- vvdydy

첨부한 <비문학 지문 독해력 향상을 위한 요약 훈련 과제 (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지금부터 '요약 훈련'을 시작하길 바란다.



비문학 지문 독해력 향상을 위한 요약 훈련 과제 (방법 및 예시)

- 꼼꼼하게 읽되, 굵직하게 파악한다. -

- 방 법 -

1. 매일 빠짐없이 1~2 지문씩 꾸준히 요약한다. →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라.
2. 반드시 지문의 핵심 어구, 문장에 밑줄 도형 등의 표기를 하고, 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듬어 정리한다.
3. 가능한 간략하도록, 그러나 전체 내용이 담겨지도록 해야 한다. (예시 참조) → 자습서 스타일로 뾰대 나는 짧은 개념어로 요약하려 하지 마라. 가능한 지문 그대로의 표현을 살려 구체적 핵심 내용을 써야 한다.
4. 여러 번 거듭 읽고, 필요한 경우 사전을 찾아보는 등 요약 과정에서 지문에 나오는 용어, 개념, 지문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한다.
5. 한 문단 읽고 바로 그 문단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 문단으로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요약한다.
6.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며,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비를 넘기면 매일 잠깐 짬을 내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 이 <요약 과제>를 통해, 여러분은 수능 그날까지 대략 200 여개의 지문을 요약하게 됩니다. 과제용 지문은, 초반부에는 '수능/모의평가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고, 후반부에는 출제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한 'EBS 지문'으로 구성됩니다.

☞ 언어영역 학습은 곧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잠깐씩 짬을 내어 1~2 지문씩 요약해 나가면, 몇 달 후에 자신의 '지문 독해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과제 문서파일'을 인터넷으로 매주 6지문씩 제공합니다. [다호라] → <이찬희 언어멘토링> → [자료다운]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인쇄하면 됩니다. (* 다호라 : www.dahora.co.kr)

※ 다음 지문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비문학 지문을 철저히 읽고 이해한다는 건, <꼼꼼하게 읽은 후, 굵직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세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독해>를 의미한다.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글의 큰 흐름이 딱 보여야 한다. 왼쪽의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글이 어떤 <굵직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 글은 [지와 행]에 대한 글이다.
- (2) [조선 성리학자의 지와 행] → [18C 홍대용의 지와 행] → [19C 최한기의 지와 행] → [왜 이들의 지행론이 다른가?] 의 줄기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다.

(1)은 이 글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큰 줄기 곧 글의 <등뼈>이다. (2)는 이 등뼈로부터 갈라져 나온 <갈빗대>이다. 이 등뼈와 갈빗대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갈빗대>에는 <살코기>가 붙어 있다.

지와 행

- **조선 성리학자**
 - 지행병진, 상자호진
 - 도덕적 실천과 결부
 - 마음속 만물의 이치를 도덕적 수양을 통해 찾고자 함
- **18C 홍대용**
 - 행 = 도덕적 수양 + 사회적 실천
 - 지 = 도덕 법칙 + 실용적 지식
 - 지행병진 전제 and 행 > 지
- **19C 최한기**
 - 행 = 일체의 경험
 - 지 =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 지식
 - 선행후지
 - 대상 : 인간, 사회, 자연
 - 차별화된 지식론 : 행1 → 지1 → 행2 → 지2 ... 물리 → 사리 → 인도
- **why 다름?**
 - 학문 목표와 관련
 - 성리학자 : 도덕적 수양
 - 실학자(홍대용) : 사회 현실 개혁
 - 특히, 최한기 : 격변 시대 대처

위 정리는 글의 <큰 흐름>과 더불어서 <세부적 정보>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숲도 조망하면서도 나무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걸 머릿속에 다 암기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연히 암기는 불가능하다. 지문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것을 즉각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와 행>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성리학자], [18C 홍대용], [19C 최한기]가 말한 <지>, <행>, <지와 행의 관계>가 중요하고, [why 다름?] 이 중요한 것이다.

기출 지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당 지문의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출 지문을 통해 '지문 독해'의 방법을 터득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문에 이를 계속 적용해 보는 훈련으로 그 독해의 방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혀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원칙을 실제로 지문 읽기에 적용해 나가라.

-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는 굵직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전체>의 눈으로 다시 <부분>을 보라.
- 글에는 <등뼈>가 있고, <갈빗대>가 있고, <살코기>, <비계 덩어리>도 있다. 글의 <등뼈>를 먼저 보고, 그 등뼈에서 갈라져 나온 <갈빗대>의 연결을 본 다음, 그 갈빗대에 붙어 있는 <살코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 독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전체의 모습>을 계속 구성해가면서 읽어야 하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주요 부분>을 재빨리 한 눈에 훑어보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밑줄, 도형 표기임)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훑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진입한다.

1.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①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②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1)>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③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2)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겼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3)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④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⑤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 정 :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1> 정나라, 자산

-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 확대
-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2> 귀족 정치 위기 수습, 부국강병이 과제

- 귀족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 약화에 초점 맞춰 개혁 추진

<3>

- (1) 토지의 백성 소유 허용 (민부를 국부와 연결)
 - (2) 중간 계급의 정치 논의 허용
 - (3) 법치 체계 수립 (형법 성문화)
- 귀족의 지배력 약화 조치 so, 귀족들의 반발

<4>

- 부국강병 이름
 - 백성의 위상 높임
- but,
- 힘에 의존한 역치의 가능성 농후
 - 국가에 의한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 폐단

2.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①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A. L. 웨버는 대표작 **<캐츠>**의 일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이지 않는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체계 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승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 <1>
- 전통적 철학적 미학 :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
 - 현대 체계 이론 미학 :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
 - = 외적 연관에서 벗어난 자기 연관적 체계
 - = 예술의 자율성 중시
- then, 뮤지컬은 ?
- <2>
- 전통적 철학적 미학 :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
- so, 고전적 기준의 훌륭한 뮤지컬
- = 내용(극본) + 형식(음악, 무용, 무대장치, 의상/소품)
- <3>
- but, 캐츠
- (내용) 안 중요 / (무대, 춤, 노래 = 형식) 이 핵심
 - 리뷰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
- <4>
-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에 따른 '레뷰로서의 뮤지컬'
 - = 예술로서의 예술의 범례
 - =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입장에서는) 예술의 승고한 가치 지향성을 포기한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

3.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 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바뀔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시간 걸릴 수 있다**

포인터:	저장소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0000:	산 이름 다음 포인터
1000:	백두	1000:	백두 1008
1001:	설악	1002:	㉠ ㉡
1002:	지리	1004:	지리 1006
1003:	한라	1006:	한라 ----
1004:		1008:	설악 ㉢1004
:		:	

<그림 1> 배열 <그림 2>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와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고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시간 걸릴 수 있다**

한편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1>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 구조

: 배열 / 연결 리스트

<2>

o 배열

-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 사용
-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 일치
- 읽기/쓰기 : 바로 접근
- 삽입/삭제 : 시간 걸릴 수 있다(자료 순번 바뀔수록)

<3>

o 연결 리스트

- '자료'와 '다음 포인터'를 함께 저장
- 물리적 저장 위치와 상관없이 논리적 순서 유지 가능
- 삽입/삭제 : 간단
- 읽기 : 시간 걸릴 수 있다(논리적 순서에 따라 차이)

<4>

o 이중 연결 리스트

- 앞에 연결된 저장소 포인터 하나 더 저장
- 연결리스트보다 자료 접근 용이
- :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 자료 접근 가능하므로



4.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율리우스력에서 윤년을 좀 줄였다.

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 16C 교황청, 그레고리력 시행

- 10일 사라짐

- 부활절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따라

<2>

○ (이전) 율리우스력

• 1년 길이 평균값 365일 6시간 근거

• 평년 365일, 4년마다 윤년 366일

• 4년은 실제보다 길어 절기가 앞당겨짐

so, 춘분을 기준으로 한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

<3>

○ 릴리우스

• 율리우스력처럼 태양 운동만을 근거로 1년 길이 정할

것 제안

• 문제 : 무엇을 1년 길이로 볼 것인가?

<4>

• 코페르니쿠스 ‘항성년’을 1년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 절기에 부합하는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5>

• 원인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

모아놓은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함.

•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는 율리우스력 방식을

수용하되, 윤년을 좀 줄임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 추가)

so, 그레고리력 :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



5.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a)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b)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c)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d) '밟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e) '어둑새벽' 그리고 (f)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 <1>
- 두더지 : 두더 (두디다 > 뒤지다) + 지(쥐)
- <2>
- '뒤지쥐, 달리차'는 어색.
 - but, '뒤지는 쥐', '달리는 차'는 자연스럽다.
- 왜?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니까.
- <3>
- 통사적 합성어 (구를 만드는 방법 O)
 - 호두과자 : 체언 + 체언
 - 한번 : 관형사 + 체언
 - 잘생기다 : 부사 + 용언
 - 된장 :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 낮설다 : 체언 + 용언
 - 접어들다 : 용언의 연결형 + 용언
- <4>
- 비통사적 합성어 (구를 만드는 방법 X)
 - 오르내리다 : 용언 어간 + 용언 어간
 - 밟상 : 용언 어간 + 체언
 - 어둑새벽 : (독립 쓰임 X 어근) + 체언
 - 귀엣말 : 부사격조사 '에' + 관형격 조사 'ㅅ' 포함 단어
- <5>
- 두더지 : 용언 어간 + 체언 so, 비통사적 합성어
 - but, 어형 변화로 합성어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움
 - 숫돌 = 숫('숫다'의 어간) + 돌(체언), 비통사적 합성어
 - but, 어형 변화와 '숫다'의 소멸로 원래의 짜임새 알기 어려움.

6.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액면 이자율**)(**만기일**)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 %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 <1>
 - 채권
 - 국채, 회사채 등 다양
 - 발생 시, 액면 금액 / 액면 이자율 / 만기일 정해짐
 - 정기적으로 이자액 받고, 만기일에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 지급 받음
 - 채권 가격
 -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
- <2>
 - 금리와 채권 가격
 - 채권의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 ‘금리’를 반영하여 ‘미래에 받을 금액’을 할인하게 된다.
 - 금리 상승 → 채권의 현재 가치 하락 → 채권 가격 하락
- <3>
 - 만기와 채권 가격
 -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
 -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 기대
 -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
- <4>
 -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 지급 불능 위험 증가 (경영 악화) → 채권 가격 하락
- <5>
 - 다른 자산 시장 상황과 채권 가격
 - 다른 자산 시장 호황 → 채권 가격 하락할 수도 (채권 수요가 줄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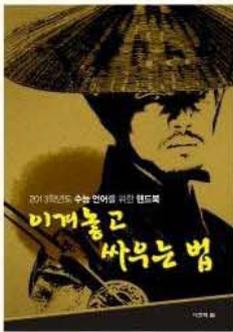
언어 영역 학습지침서 <이겨놓고 싸우는 법>과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능/모의평가 문제집과 해설집, <마르고 닳도록 시리즈>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랑스러운 학습 성공담도 좋고, 가슴 아픈 실패담도 좋습니다. 칭찬도 좋고, 따끔한 지적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 고민도 좋습니다. 혹은 해설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체험의 목소리가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madal.co.kr

마리깡표



2013학년도 수능 언어를 위한 핸드북

마리깡표 싸우는 법

만약, 네가 비약적 상승을 꿈꾼다면,
너에게 익숙한 그 방식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꿈꾸는 목표에 걸맞은 외롭고 힘든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마리깡표 시리즈

이 정도로 충실·풍부·정확한 해설은 은하계 내에서는 없다!

최고의 학습 교재는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는 없다. '평가원 표' 기출 문제들은 언어 학습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다른 친구들에게 해설해 줄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정복해내야 한다.



마리깡표 (수능 기출 문제집)



마리깡표 (수능 기출 해설집)



마리깡표 (모의평가 문제집)



마리깡표 (모의평가 해설집)